

연령과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이 유아의 거짓말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Preschool Children's Age and Mothers' Modes of Verbal Control on Children's Lying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석사 오유리*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아동학협동과정
교수 도현심**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협동과정
겸임교수 최미경

Dept. of Consumer Science and Human Development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
Master : Oh, You-Lee

Department of Psychology /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Child Development & Intervention, Ewha Womans Univ.
Professor : Doh, Hyun-Sim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Child Development & Intervention,
Ewha Womans Univ.
Adjunct Professor : Choi, Mi-Kyoung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how preschool children's age and mothers' modes of verbal control affect children's lying. A sample of 108 preschool children aged from 3 to 6 participated in a lying experiment. Their mothers answered questionnaires regarding the mothers' modes of verbal control. Preschool children's lying was measured by the Guessing Game Experiment developed by Talwar and Lee(2002). Mothers' modes of verbal control were measured by Jung's(2005) scale for preschool children. To analyze the data, crosstab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showed that three-year-old children are able to lie intentionally. The older preschool children lied more than the younger ones. Mothers' imperative and personal modes of verbal control were positively related to preschool children's lying. The most significant variable on preschool children's lying was mother's imperative modes of verbal control, followed by personal modes of verbal control, which emphasizes the crucial influence of parenting on preschool children's lying.

▲주요어(Key Words) : 유아의 연령(Preschool children's age),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Mother's modes of verbal control), 유아의 거짓말(Preschool children's lying)

* 주저자 : 오유리 (E-mail : ohyoulee@hanmail.net)

** 교신저자 : 도현심 (E-mail : simdoh@ewha.ac.kr)

I. 서론

아동의 거짓말은 거짓말, 속임, 정직행동의 측면에서 도덕성의 하위요소로 간주된다. 그러나 도덕성의 주요 이론에서 거짓말이 중요하게 거론된 점에 비해, 발달영역에서 거짓말 자체에 대한 실제적 연구는 많이 수행되지 않았다(Bussey, 1992). 이러한 측면에서, 거짓말에 관한 이론적 근거는 도덕성 발달 관련 문헌을 대안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짓말과 도덕성에 관한 연구들은 아동의 거짓말에 대한 개념과 이에 대한 도덕 판단에 초점을 맞춘 인지발달론에 입각하여 진행되어왔으나(Bussey, 1992, 1999; Lewis, et al., 1989; Talwar & Lee, 2002; Thoma, et al., 1991), 국내 연구들(김시은·정영숙, 2000; 김신옥, 1987; 김희주, 1988; 손은경, 2002)은 대부분 국외 연구를 국내에 적용한 것에 그쳐 국내외 연구 경향이 매우 유사하다.

거짓말과 도덕성의 관련 변인으로는 아동의 연령, 가정환경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원효현, 1987; 황혜원, 2002), 양육관련변인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중 연령과 부모의 양육관련변인은 아동의 거짓말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고려되어 왔다(김경희, 2002; 김시은·정영숙, 2000; 노인석, 1987; 원효현, 1987; 이옥경·이순형, 1996; 이윤진, 2000; Hoffman & Saltzstein, 1967). 특히 연령을 도덕성이나 거짓말과 관련시켜 살펴본 국내외 연구들은 아동이 몇 세부터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판단하며 실제 속일 수 있는가에 관해 관심을 가졌다. 이에 관해 논란이 되는 연령은 3세로서 어떤 연구자들은 최소 3세 유아도 의도를 고려한 거짓말 판단 및 의도적 거짓 행동이 가능하다고 본 반면, 3세 아동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상반된 연구 결과를 내놓은 연구자들도 있다(이윤진, 2000; Talwar, Lee, Bala, & Lindsay, 2002). 만 3-5세 유아 각 22명씩 총 66명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이윤진, 2000), 3세는 속이는 것에 실패하였으며, 3세와 4세간의 차이가 4세와 5세간의 차이보다 훨씬 두드러졌다. 한 국외 연구에서도(Talwar et al., 2002), 3세 아동은 거짓 행동을 보이긴 하였으나 나이든 아동들에 비해 자신의 거짓말을 보다 많이 고백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거짓말하기를 실패하였다. 이처럼 거짓말이 가능한 시기에 대해 3세를 중심으로 학자마다 다른 견해를 제시하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의도를 가지고 속임 행동이 일어나는 연령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또한, 아동의 연령 증가에 따라 거짓말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관심을 둔 연구자들은 아동이 나이가 들수록 행위자의 의도와 상황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정교한 도덕성 및 거짓말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권향숙, 1989; 김희주, 1987; 손은경, 2002; Bussey, 1992;

Peterson & Seeto, 1983; Polak & Harris, 1999). 그러나 실제 거짓말 행위에 있어서는 정교한 거짓판단이 가능한 나이든 아동이 어린 아동보다 거짓말을 덜 하게 된다는 입장(양돈규·성옥련, 1994; 이옥경·이순형, 1996; Blasi, 1980)과 나이든 아동이 같은 상황일지라도 거짓이라고 덜 분류하거나 거짓말에 대해 관대해짐으로써 거짓말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입장(이선인, 1993; 이은정·우남희, 2003; Peterson, 1983)으로 나뉜다. 이처럼 연령과 거짓말 간의 관계에 대해 불일치하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양자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아동의 연령과 거짓말간의 관련성에 더해, 아동의 거짓말을 이해하는 데 아동의 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기존의 연구들이 부모의 양육 변인을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고려해 온 점에 기초할 때(강석중, 2002; 배현진, 2000), 부모의 양육행동은 유아기 아동의 거짓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예측된다. 그러나 실제로 아동의 거짓말을 양육행동과 관련시켜 살펴본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몇 편 안되는 연구이지만, 국내 연구들은 부모의 거짓말에 대한 생각, 개념, 도덕적 판단 능력, 양육태도 및 행동, 언어통제유형 등을 아동의 거짓말과 관련시키고자 시도하였다(박찬옥·권향숙, 1990; 손은경, 2002; 이은정·우남희, 2003; 이현경, 1997). 반면에, 국외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도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오래된 연구(Hoffman & Saltzstein, 1967) 외에, 대부분 부모변인 보다는 아동의 거짓말 발달 자체에 초점을 두었다(Bussey, 1992; Lewis et al., 1989; Peterson & Seeto, 1983; Polak & Harris, 1999; Talwar et al., 2002).

실제로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은 언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유아는 부모로부터 언어를 통하여 그 언어에 내포된 의미와 특징적인 행동양식을 내면화하므로 부모의 대화 태도, 내용, 방식에 따라 아동의 생각과 행동은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Gumperz(1973)는 Bernstein(1971)의 언어사회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사회적 통제의 양식으로 명령적 통제(imperative modes of control)와 대화에 근거한 통제(control based upon appeals)로 구분하였으며, 대화에 근거한 통제를 다시 지위적 통제(positional modes of control)와 개인적 통제(personal modes of control)로 나누었다. 명령적 통제는 부모가 유아의 행동을 통제할 때, 유아의 의도와 요구는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체벌이나 위협과 제한된 어법을 통해서 지시에 복종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제를 사용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역할 재량권(role discretion)을 용인하지 않으며, "입 다물어.", "나가."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지위적 통제는 부모가 지위에 근거한 규범에 따라 유아를 통제하는 것으로, 특별한 시간, 장소, 상황에만 적용하는

기준, 혹은 유아의 성별, 나이 등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통제는 제한된 어법과 정교한 어법의 형태로 자녀에게 전달이 가능하며, 예를 들면 “남자 아이는 인형을 가지고 노는 게 아니야.”와 같은 표현을 들 수 있다. 개인적 통제는 유아가 자신의 행동결과를 스스로 인지하고 행동에 대해 판단하여 책임질 수 있도록 하되 타인의 입장에 대한 배려와 정서적 측면을 고려하여 행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부모는 자녀가 규칙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한 필요한 설명을 제공해 준다. “내가 자꾸 그러면 아빠가 싫어하실 걸.”과 같은 표현은 개인적 통제의 일예가 된다. 개인적 통제 역시 제한된 어법과 정교한 어법표현이 가능하다.

부모-자녀관계에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 사용하는 언어적 통제는 일종의 자녀양육행동 측면에서 조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은 아동의 몇몇 발달결과와 관련하여 연구되어져 왔다. 국내에서 수행된 여러 연구들은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이 유아의 자기통제력(정지영, 2005), 조망수용능력과 대인문제해결력(남현영, 2004), 정서조절능력과 공격성(허정목, 2005), 사회적 문제해결전략(이애리나, 1990), 친사회적 사고(도혜숙, 1997), 사회 적응(김정선, 2004) 등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이경희·정옥분, 1994).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을 유아의 사회적 능력 중에서 도덕성과 관련시켜 살펴본 몇몇 연구들도 발견된다(우혁기, 2003; 이미순, 2004; 이현경, 1997). 만 5세 유아와 어머니 각각 105명을 대상으로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도덕성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결과(이현경, 1997)에서, 유아의 도덕위반 행동점수는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어 명령적 통제, 지위적 통제, 개인적 통제 순으로 유아는 도덕위반행동을 가장 많이 하였다.

이처럼,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을 유아의 도덕성 발달과 관련시켜 살펴본 연구들은 몇몇 보고되었으나, 이를 유아의 거짓말과 관련시켜 살펴본 경우는 매우 드물다. 몇 편 안되는 연구 가운데 박찬옥과 권향숙(1990)은 6, 8, 10세 아동 109명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Peterson과 동료들(1983)이 사용한 과장, 욕설, 연령추측, 방향추측, 자기 보호적 거짓말-중립적결과, 자기 보호적 거짓말-차별결과, 자기 보호적 거짓말-믿게 된 결과, 선의의 거짓말, 실용적인 농담, 이타적 거짓말 등 10가지 이야기 과제를 통해 어머니의 언어통제방식과 아동의 거짓에 대한 판단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이 역시 언어통제를 도덕성과 관련시킨 연구결과들(우혁기, 2003; 이미순, 2004; 이현경, 1997)과 마찬가지로 의도적 어법을 사용하는 어머니일 경우에 자녀가 거짓판단을 의도중심으로 하여 주어진 10가지 이야기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판단하는 비율이 낮았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유아의 거짓말 판단능력만을 다루고 있어서 실제 유아의 거짓말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아동의 도덕 판단 수준이 높을 경우에 이에 준하는 성숙한 도덕행위가 요구되나, 도덕 판단의 변화는 상황에 따라 좀처럼 변하지 않는 반면, 도덕적 행동은 주로 상황적이어서 새로운 환경에 접하면 변화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는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거짓말 연구가 주로 거짓말 개념 및 판단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데서 맥락을 같이 하는데, 실제 거짓말이 실행되려면 외부환경의 자극과 그에 대한 인식, 이성의 판단 및 선택, 행동에의 이행 등 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거짓판단으로 실제상황에서 유아의 거짓말을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실제 유아의 거짓말이 일어나는 상황을 통해 어머니의 언어통제방식과 유아의 거짓말간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처럼 연령과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이 각각 거짓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은 발견되나, 양 변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이러한 변인들이 유아의 거짓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유아의 연령과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이 각각 유아의 개인요인과 환경요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어느 요인이 유아의 거짓행동을 보다 잘 예측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유아의 개인요소와 환경요소가 거짓말과 같은 사회적 일탈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령과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이 유아의 거짓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만 3-6세의 유아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3세에도 거짓말이 가능한 지를 탐색해보고, 연령과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이 각각 유아의 거짓말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이 유아의 거짓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실제 거짓말 상황 실험관찰을 통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유아기 아동의 거짓말 시작연령을 비롯해서, 연령 및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의 개별적 및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자녀가 보다 정직하게 성장하길 원하는 부모와 교사들에게 하나의 지침을 제시하는 데 그 의의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3세 유아는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
- <연구문제 2> 연령은 유아의 거짓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3>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은 유아의 거짓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4> 유아의 연령과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이 유아의 거짓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Y시에 소재한 3개의 유치원 및 어린이 집에 다니는 만 3-6세 유아 108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을 유아기로 선정한 이유는 대부분의 도덕성 연구가 이미 인지적인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유아기는 타고난 유전적 영향과 부모의 환경적 영향이 공존하는 시기이며 유아도 자율성과 주도성을 가지고 인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 거짓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Piaget, 1965). 특히 3세 유아를 연구 대상에 포함시킨 이유는 3세 유아의 거짓말 가능성에 대한 상반된 입장, 즉 거짓말이 가능하다는 입장(김현정·조숙자, 2003; Lewis, et al., 1989)과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윤진, 2002; Talwar, et al, 2002)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연령에 따른 연구 대상 유아의 수는 <표 1>과 같다.

어머니용 질문지에 근거한 연구대상 유아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살펴보면 유아의 성별구성은 남아가 55명(50.9%), 여아가 53명(49.1%)으로 남녀 비율이 비슷하였으며, 출생순위는 외동이가 11.8%, 첫째가 36.6%, 둘째가 47.3%, 셋째 이상이 4.3%로 둘째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가족구조는 핵가족이 92.5%, 대가족이 7.5%로 대부분이 핵가족에 해당되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연령은 35~39세가 각각 52.7%와 57.0%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부모의 교육수준 역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대졸이 각각 57%와 53.8%로 가장 많았다. 부모의 직업은 아버지의 경우,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이 49.5%를 차지하였으며, 어머니의 경우 전업주부가 81.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 조사 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유아의 거짓말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 상황과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을 측정하기 위한 어머니

보고용 질문지로 구성되었다.

1) 유아의 거짓말 실험 상황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유아의 거짓말 실험 상황은 Lewis 등(1989)의 연구에서 사용된 실험절차를 Talwar와 Lee(2002)가 재구성하여 사용한 '추측게임실험(guessing game examination)' 상황이다. 실험 참여자 및 실험도구를 비롯한 구체적인 실험절차와 측정방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실험 참여자와 실험도구

본 실험의 참여자는 실험자와 보조자, 그리고 실험 대상 유아이다. 실험자는 실험의 전 과정을 진행하며, 보조자는 실험자를 도와 실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실험자와 보조자에게 누가 엿보았는지를 추측할 수 있는 어떤 정보도 주지 않았는데, 이는 누가 엿보았는지 알게 되면 실험자의 편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었다.

실험도구로는 놀러서 소리 나는, 유아에게 잘 알려진 장난감 두 개, 목표 장난감, 장난감을 감추는 데 사용되는 천, 실험자용 의자, 유아용 의자, 유아용 탁자 등이다. 선행 국외 연구(Talwar & Lee, 2002)에서는 유아가 게임에서 2차례의 성공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북미에서 유행한 Toy Story 장난감과 놀러서 소리 나는 잘 알려진 장난감을 연습용으로 사용하였으며, 목표 장난감으로 Barney 토끼인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국내 상황에 적용하여, 성공경험을 위한 연습 장난감으로는 비행기 소리가 나는 장난감 비행기와 청각적 단서인 울음소리와 실제 모습이 일치하는 공룡 봉제인형을, 목표 장난감으로 청각적 단서와 시각적 단서가 서로 연결되지 않는 생일 축하노래가 나오는 곰인형과 멜로디가 나오는 장난감 시계를 아동에 따라 무선으로 배당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을 마친 유아에게는 캐릭터 지우개를 선물로 전달하였다.

(2) 실험 절차

본 연구의 실험 상황을 간단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실험자는 유아에게 인형의 소리를 듣고 맞추는 게임을 할

<표 1> 연령별 연구 대상 유아의 수

연령(세)	남 아	여 아	계
3	10	8	18
4	14	15	29
5	14	17	31
6	17	13	30
계	55	53	108

것이라고 말한 후, 성공하는 경험을 2회에 연이어 제공한다. 그런 다음, 3번째 게임 시 인형을 꺼내놓고 30-60초간 방을 비워 아동의 엿보기 행동을 유도하는데, 각 유아가 방에 홀로 있는 시간은 30초, 40초, 50초, 혹은 60초 등으로 무선 배당된다. 실험자는 돌아와서 유아에게 자신이 방을 비운 사이 뒤로 돌아 엿보았는지를 묻는다. 원 척도(Talwar & Lee, 2002)에 근거한 구체적 실험절차를 실험 이전, 실험 중, 그리고 실험 이후로 나누어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가. 실험 이전

① 실험자는 보조자의 지시에 따라 실험실에 들어온 대상 유아에게 “이름이 뭐니?” 라고 질문한 후 책상을 등 뒤로 하여 의자에 앉게 한다.

② 이름을 듣고, “○○야, 지금부터 선생님과 장난감 맞추는 게임을 할 거야.” 라고 말한다.

③ 그런 다음, “선생님이 돌아보라고 할 때까지 돌아보면 안돼.”라고 주의를 준다.

나. 실험 중

① 실험자는 첫 번째 연습용인 장난감 비행기를 책상 위에 꺼내어 “잘 들어봐.”라고 말한 뒤 소리가 나게 한다.

② 소리가 끝날 때 쯤 “이것은 무엇일까?”라고 묻는다. 만약 유아가 첫 단서로 추측하지 못했을 경우, 실험자가 그들이 알아맞힐 때까지 언어적 단서를 준다(예: “이걸 타고 하늘을 날아.”, “뿔다 뿔다 ○○○...” 등).

③ 유아가 이를 맞추면 두 번째 연습용인 장난감 공룡을 꺼내어 소리가 나게 한다.

④ 공룡이 세 번 운 뒤 “이것은 무엇일까?”라고 묻는다. 만약 유아가 첫 단서로 추측하지 못했을 경우, 실험자가 그들이 알아맞힐 때까지 언어적 단서를 준다(예: “티라노사우르스를 뭐라고 부르지?”, “둘리를 뭐라고 부르지?”, “두 글자이고 공으로 시작해” 등).

⑤ 유아가 맞추면 보조자가 들어온다.

⑥ 보조자가 “선생님께 전화가 왔어요.”라고 말한다.

⑦ 실험실을 떠나기 전 실험자는 일어나서 뒤돌아 앉아 있는 유아의 앞으로 다가가 눈을 맞추고, “선생님이 전화 받는 동안 너는 잠시 혼자 있게 될 거야. 다음 장난감은 소리 나는 채로 책상 위에 둘게. 그 동안 뒤돌아서 엿보면 안돼. 선생님이 돌아와서 장난감이 무엇인지 물어 볼 텐데, 네가 장난감이 무엇인지 맞추면 상을 줄 거야.” 라고 말한다.

⑧ 실험자는 “뒤돌아보지 마.”라고 말하며 방을 떠난다. 이때 밖에 있는 보조자는 실험자가 나온 뒤, 유아에게 무선 배당된 시간 간격(30-60초)에 맞게 시간을 측정한다.

⑨ 각 유아에게 주어진 시간 간격이 지난 후, 실험자는 방에 들어가는 문을 열기 전에 문고리를 몇 번 돌려서 유

아에게 들어가는 신호를 준다.

⑩ 방에 들어가면서 실험자는 “선생님이 돌아보라고 할 때까지 아직 돌아보지 마.” 라고 말한 뒤 책상위에 있는 목표 장난감을 손수건으로 가린다.

⑪ 유아에게 “이젠 돌아봐도 돼.”라고 말한다.

⑫ 실험자는 유아에게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유아가 각 질문을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머리를 돌리고 의자에서 움직이며 장난감을 엿보는 행동을 시연한다.

Q1: “내가 나간 사이에 머리를 돌려서 보았니?”

Q2: “내가 나간 사이에 네 의자를 돌려서 보았니?”

Q3: “내가 나간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 보았니?”

다. 실험 후

① 대답을 들은 후 “그 장난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묻는다. 유아가 정답을 말한 경우에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묻는다(예: “왜 곰 인형(혹은 시계)이라고 생각해?”).

② 유아가 대답한 뒤, “선생님과 확인해 볼까?” 라고 하면서 덮었던 손수건을 열어 보여준다. 그리고 “곰 인형(혹은 시계)이네.” 라고 말하여 정답을 확인해 준다.

③ “수고했어.” 밖에 나가면 선생님이 네게 수고했다고 상을 주실 거야.”라고 말한다(실험실 밖으로 나온 아동들 모두에게 상을 준다).

(3) 측정 방법

본 실험의 측정은 Lewis와 동료들(1989), Polak과 Harris(1999), Talwar와 Lee(2002)의 연구에 근거하였다. 실험조건에서 주어진 시간 내에 머리를 돌려 장난감을 직접적으로 본 경우는 엿본 유아로 간주하였으며, 이들 중에서 실험자가 묻는 세 가지 확인 질문에 모두 ‘아니오’ 라고 부인한 유아를 거짓말을 한 유아로 분류하였다. 엿본 뒤에 세 가지 질문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해 엿보았다고 고백한 유아와 실제로 엿보지 않은 후 엿보지 않았다고 응답한 유아는 거짓말을 하지 않은 유아로 구분하였다.

2)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 척도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이경희(1993)가 제작한 28문항의 아동용 척도를 정지영(2005)이 유아의 상황에 맞게 학업이나 학교생활과 관련된 4문항을 제외시켜 총 24문항으로 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다양한 상황으로 제시되는 각 문항마다 3가지 요인인 명령적 통제, 지위적 통제, 개인적 통제로 표현된 각각의 반응에 대해 응답하도록 되어 있는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밖에서 놀다 들어와서 손 씻기를

잊어버리고 식탁에 앉는다면, 어머니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라는 상황을 제시하는 문항에 대해, 각각 세 가지 언어통제유형, 즉 명령적 통제(예: 아휴, 저 손 빨리 씻고 와!), 지위적 통제(예: 식사 전에는 손을 씻어야지.), 개인적 통제(예: 손이 더러우면 네 손에 있는 더러운 균도 같이 먹게 될 텐데.) 등의 세 가지 반응을 예시하고, 각 반응에 대해 ‘거의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각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각 유형의 통제를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 요인별로 Cronbach's α 에 의해 산출된 신뢰도를 살펴보면, 명령적 통제유형은 .93, 지위적 통제유형은 .84, 개인적 통제유형은 .88이었다.

3. 조사 절차

본 연구는 경기도 Y시에 위치한 3개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예비실험 및 본 실험을 실시하였다. 예비실험은 본 실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검사 소요시간을 알아보기 위해, 2007년 10월 2일에 만 3, 4, 5세 각각 3명씩 총 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예비실험을 통해, 실험시간은 6-9분 정도 소요되고 각 장난감에 맞는 언어적 단서가 추가로 필요하며 좀 더 폐쇄적인 공간구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4주에 걸쳐 5차례로 나누어 본 실험을 진행하였다. 어머니용 질문지는 유아 편에 배부·회수하였다.

1) 실험 조사

3개의 유아교육기관 3-7세반 유아 139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으나 실험 중에 방에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여 실험실을 나온 2명의 탈락자를 제외한 총 137명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실험자와 보조자는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으로, 실험은 각각 한 명의 실험자와 한 명의 보조자로 구성된 두 팀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두 곳에서 실시하는 실험절차 및 도구는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실험은 유아들이 등원한 이후부터 시작되어 오전 중에 진행되었다.

먼저, 연구대상 유아가 다니는 기관의 빈 교실을 실험실로 하여 유아가 실험자와 등지고 의자에 앉도록 책상을 사이에 두고 두 의자를 한 방향을 보게 배치하였다. 또한 실험자가 방을 비운 시간에 유아의 행동을 살펴보기 위해 비디오키메라를 유아의 시야를 피하여 설치하였다. 공간구성이 끝난 후, 두 명의 유아를 데리고 와서 한 명은 실험실에 들어가고 한 명은 밖의 대기실에서 기다리도록 하였다. 보조자는 실험실 밖에서 실험실에 들어간 유아의 이름과 유아에게 배당된 시간을 기록하였고, 각 반 명단을 확인하여 누락된 유아가 없는지 점검하였다. 또한 실험 도중 전화가 왔다면 실

험실에 들어가는 시간을 정확히 맞추기 위하여, 보조자는 실험실 문틈으로 실험실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으며, 실험자가 유아를 혼자 두기 위해 실험실에서 나왔을 때에는 각 유아에게 할당된 시간이 정확하게 지켜지도록 즉시 초시계로 시간을 측정하였다. 보조자는 또한 실험을 마치고 실험실을 나오는 유아에게 선물을 전달하였다.

2) 질문지 조사

실험을 실시한 137명의 유아 편에 어머니용 언어통제유형 질문지를 배부하였으며, 그 가운데 회수된 108부(78.8%의 회수율)를 본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program 1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도구의 내적 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고, 본 분석에 앞서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예비분석에서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거짓말에서의 성차를 확인하기 위해 각각 t 검정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동시에 유아의 연령과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간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유아의 연령과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이 각각 거짓말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하여, 양 변인이 거짓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거짓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거짓말을 하는 확률에 대하여 1값, 거짓말을 하지 않는 확률에 대하여 0값을 사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예비 분석

본 분석에 앞서,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거짓말에서의 성차와 양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예비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에서의 성차를 살펴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명령적 통제($t=.845, p>.05$), 지위적 통제($t=-.461, p>.05$), 그리고 개인적 통제($t=-.960, p>.05$) 모두 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유아의 성별에 따라 유아의 거짓말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유의미한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chi^2=.063, df=1, p>.05$). 또한, 유아의 연령과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간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에서도, 유아의 연령은 어머니의 명령적 통제($r=.115, p>.05$),

<표 2> 연령별 유아의 거짓말 현황

N=108 (괄호 안은 백분율)

연령(세)	거짓말		계
	예	아니오	
3	4(22.2)	14(77.8)	18(100)
4	17(58.6)	12(41.4)	29(100)
5	18(58.1)	13(41.9)	31(100)
6	19(63.3)	11(36.7)	30(100)
계	58(53.7)	50(46.3)	108(100)

<표 3> 연령이 유아의 거짓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β	S.E	Wald	exp(β)
연령	.443*	.192	5.329	1.557
χ^2			5.581*	
df			1	

* $p<.05$, 주) exp(β)=승산비(Odds Ratio)

지위적 통제($r=.019$, $p>.05$), 개인적 통제($r=.112$, $p>.05$) 가운데 어떤 요인과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β 값은 .443이고 $p<.05$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유아는 거짓말을 많이 하였다(<표 3>).

2. 3세 유아는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

유아를 대상으로 거짓말 실험을 실시한 결과, 전체 108명의 유아 중에서 58명(53.7%)이 거짓말을 하였고 거짓말을 하지 않은 유아는 63명(46.0%)이었다. 3세 유아들 가운데도 거짓말을 한 유아들이 발견되어, 18명 가운데 1/4에 가까운 4명(22.2%)이 거짓말을 하였다.

3. 연령이 유아의 거짓말에 미치는 영향

연령이 유아의 거짓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에 앞서, 유아의 연령별 거짓말 현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거짓말을 한 유아와 하지 않은 유아는 3세 유아는 각각 4명(22.2%)과 14명(77.8%), 4세 유아는 각각 17명(58.6%)과 12명(41.4%), 5세 유아는 각각 18명(58.1%)과 13명(41.9%), 그리고 6세 유아는 각각 19명(63.3%)과 11명(36.7%)이었다(<표 2>참조). 참고로, 연령별 엿보기 현황을 보면, 3세는 18명 중 9명(50%)이, 4세는 29명 중 18명(62.1%)이, 5세는 31명 중 20명(64.5%)이, 그리고 6세는 30명 중 19명(63.3%)이 엿보기를 하였다.

또한 유아의 연령이 거짓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기 위해 거짓말 하는 확률에 대하여 1값, 거짓말을 하지 않을 확률에 대하여 0값을 사용하여 검증한 결과, 이 모델은 유아의 거짓말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데 적합하였다($\chi^2= 5.581$, $p<.05$). 연령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을 때

4.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이 유아의 거짓말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이 유아의 거짓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언어통제의 3가지 요인인 명령적 언어통제, 지위적 언어통제, 개인적 언어통제 변수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이 모델은 거짓말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 9.929$, $p<.05$).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 중에서 명령적 통제($\beta=1.543$, $p<.01$)와 개인적 통제($\beta=1.511$, $p<.05$)가 거짓말을 예측하는 데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이는 어머니가 명령적인 언어통제와 개인적인 언어통제를 많이 할수록, 유아는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표 4>).

5. 연령과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이 유아의 거짓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유아의 연령과 어머니의 세 가지 언어통제유형 등 4개의 독립변인을 투입하고 유아의 거짓말을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 모델은 거짓말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데 적합하였다($\chi^2= 9.989$, $p<.05$). 유아의 거짓말과 관련된 세 변인들의 주 효과를 살펴보면,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명령적 언어통제였다($\beta=1.519$, $p<.01$). 이는 다른 모든 독립변인들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명령적 언어통제가 1점 올라갈 때마다,

<표 4>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이 유아의 거짓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β	S.E	Wald	exp(β)
연령	.054	.221	.060	1.056
명령적 통제	1.519**	.578	6.895	4.566
지위적 통제	-1.499	.827	3.286	.223
개인적 통제	1.485*	.704	4.455	4.417
χ^2	9.989*			
df	4			

* $p < .05$, ** $p < .01$, 주) exp(β)=승산비(Odds Ratio)

<표 5> 연령과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이 유아의 거짓말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β	S.E	Wald	exp(β)
명령적 통제	1.543**	.572	7.288	4.678
지위적 통제	-1.508	.824	3.348	.221
개인적 통제	1.511*	.695	4.731	4.533
χ^2	9.929*			
df	3			

* $p < .05$, ** $p < .01$, 주) exp(β)=승산비(Odds Ratio)

EXP(1.519)= 4.566이므로 유아의 거짓말을 할 확률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확률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개인적 언어통제($\beta=1.485$, $p < .05$) 역시 유아의 거짓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EXP(1.485)=4.417였다. 즉, 유아의 거짓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명령적 언어통제와 개인적 언어통제로서, 어머니가 명령적 언어통제와 개인적 언어통제를 할수록 유아는 거짓말을 많이 하였다. 한편, 유아의 연령과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의 양 변인을 동시에 고려하였을 때, 유아의 연령이 거짓말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5>).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만 3-6세 남녀 유아를 대상으로 3세 유아의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지를 비롯하여 유아의 연령과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이 유아의 거짓말에 미치는 개별적 및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그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짓말을 시작할 수 있는 연령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실시한 결과, 3세 유아들 가운데 22.2%가 거짓말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3세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속임 행동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들(김현정, 조숙자, 2003; Lewis, et al., 1989)과 일치하는 것으로, 3세 정도의 어린 아동도 그들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행동을 위해 감추고 속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유아의 연령이 거짓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유아는 연령이 높을수록 거짓말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선행 연구결과들(이선인, 1993; 이은정, 우남희, 2003; Peterson et al., 1983)과 일치한다. 이처럼 연령에 따라 거짓말이 증가하는 것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거짓말을 의도와 배경정보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능력이 정교해지면서 같은 상황일지라도 거짓이라고 덜 분류하거나 거짓말에 대해 관대해지는 점에 기인할 수 있다. 이는 도덕 발달 초기에 유아의 행위의 옳고 그름을 외적인 준거와 행위의 결과로 판단하다가 행위의 결과와 의도를 함께 고려할 수 있게 된다는 Piaget의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Piaget, 1932). Piaget에 따르면, 도덕 발달 초기의 유아는 행위의 의도보다 결과에 근거한 판단을 하고, 규칙을 어겼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도 벌이 따르게 되며 규칙이란 절대적이고 불변의 것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인지적 성숙과 더불어 사회적 경험이 쌓이면서 유아는 도덕적 판단 시 행위의 의도와 상황적 요

인을 고려하는 융통성을 보이고 규칙은 사람이 만든 것이며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는 임의적 합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거짓말이 증가한다는 것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른 거짓말 판단력이 정교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연구결과에서 제시하였듯이, 이러한 논리는 본 연구 과정에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옛보기의 비율 또한 증가하였던 경향을 통해 지지될 수 있다. 실험상황에서 뒤 돌아보면 안 된다는 실험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실험자가 자리를 비웠을 때 연령이 높을수록 장난감을 엿본 유아가 더 많았다. 옛보기는 실험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행동임을 고려할 때, 엿본 유아는 그 자체로서 일종의 규칙위반 행동을 한 셈이다. 이것을 Piaget(1932)의 도덕발달에 대한 관점에서 서술해 본다면, 연령이 낮은 유아는 실험실에 홀로 있는 동안 엿보지 말라는 실험자의 말을 전부로 받아들이고 실험자가 올 때까지 엿보지 않는 규칙을 절대적으로 지키고자 하였을 것이다. 반면에, 연령이 높아질수록 유아는 인형이 무엇인지 맞추면 상을 받을 수 있으며, 누구도 자신이 엿보는 행동을 보고 있지 않는다는 상황판단이 개입되어 보다 많이 엿보았을 수도 있다. 연령에 따른 이러한 차이로 인해 연령이 높은 유아는 엿보는 행동을 더 많이 함으로써 거짓말 상황에 더 많이 노출되었고, 어린 유아에 비해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 셈이다.

셋째,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이 유아의 거짓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 가장 높은 영향력을 가진 변인은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 중 명령적 통제였고, 그 다음은 어머니의 개인적 통제였다. 즉, 어머니가 명령적 언어통제와 개인적 언어통제를 할수록 유아는 거짓말을 더 많이 하였다. 어머니가 명령적 언어통제를 할수록 유아의 거짓말이 증가한다는 결과는 어머니가 명령적 통제를 할수록 유아의 도덕위반 행동점수가 높고(이현경, 1997), 도덕 판단능력이 낮아진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우혁기, 2003)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어머니가 명령적 언어통제를 한다는 것은 역할재량권을 유아에게 거의 주지 않으며, 단순하고 감정적인 제한된 어법으로 아동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어머니의 언어표현에서는 의사결정과정이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특한 개인의 입장은 고려되지 않으며 어머니의 판단을 유아에게 강요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처럼 어머니가 유아의 행동을 체벌 및 언어적인 벌과 명령을 사용하여 유아의 의도와 요구는 무시한 채 복종하도록 요구하는 양육방식을 보일 때, 유아는 도덕성이 낮고 자발성이 부족한 부정적 특성을 나타내기 쉽다(Baumrind, 1967). 이는 어머니가 명령적 언어통제를 하게 되면 판단에 대한 책임이 어머니에게 있게 되므로 유아는 좀 더 수동적인 입장에서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는 행동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양상이 거짓말 행동에서도 드러나, 유아는 누구도 보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잠시 옛보아 장난감의 이름을 맞추고 상을 받게 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 행동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가 개인적 통제를 할수록 거짓말이 증가한다는 본 연구 결과는 개인 지향적으로 통제하는 어머니의 자녀가 다른 언어통제유형의 어머니에 비해 도덕위반행동을 가장 적게 하고(이현경, 1987), 도덕발달이 촉진되며(이미순, 2000), 부모 모두 개인적 언어통제유형을 사용할 때 도덕발달이 가장 높았다는 연구결과(우혁기, 2003)와는 불일치한다. 개인적 통제는 개인의 동기, 의도, 성향 등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행동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어머니는 아동에게 부모 및 아동, 제 3자 중심의 언어를 사용하되, 선택에 대한 역할 재량권을 아동에게 부여하기 때문에 유아는 더욱 자율성을 갖게 되고, 사건의 결과가 자신의 노력에 달려있으며 자신의 선택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처럼 스스로 하는 자율적 선택에 대해 책임감을 갖는 특성이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 있어서 책임감 있는 결정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어머니의 개인 지향적 통제와 유아의 도덕성 발달간의 정적인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가 개인적 통제를 할수록 아동은 주어진 10가지 거짓말 유형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판단하는 비율이 낮았다는 연구결과(박찬옥, 권향숙, 1990)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도 있다. 개인적 통제는 상황의 특성이나 다양성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게 하는 특성이 있어(이경희·정옥분, 1994), 거짓말을 정의하는 상황에서 역시 융통성을 발휘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앞서 언급했던 연령에 따라 거짓말이 증가하는 이유와 같은 방식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어머니가 개인적 통제를 하는 경우 거짓말 판단에 있어서 의도와 맥락을 고려하기 때문에 더 융통적인 시각을 갖게 되어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유아의 연령과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을 동시에 고려하였을 때, 거짓말에 대해 개별적 영향력을 나타냈던 유아의 연령은 더 이상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아의 연령보다는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이 유아의 거짓말에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유아의 여러 행동 측면에서와 마찬가지로 거짓말에 있어서 부모의 양육행동이 차지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연령과 관련된 본 연구결과는 유아의 인지 발달 수준에 맞는 도덕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유아의 연령에 비해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은 상대적으로

보다 커다란 영향력을 보임으로써, 아동의 제 발달영역 측면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도덕성 발달의 일종인 거짓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한다. 다만, 언어통제유형 가운데 명령적 통제가 유아의 거짓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은 이해할 만하나, 개인적 통제 역시 유사한 결과를 보인 점은 보다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과제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부모 중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이 유아의 거짓말에 미치는 영향력은 살펴볼 수 없었다. 아동의 발달에 부모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주며, 아버지의 양육은 자녀의 사회성 및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결과(정현희, 최경순, 1992)에 근거할 때,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범위를 넓혀 아버지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실험 연구라는 특성상 연구대상 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한 표집 방법을 이용하여 보다 다양한 지역의 여러 계층에 속한 다수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3세 유아 가운데 22.2%가 거짓말을 함으로써 3세 유아의 거짓말 가능성을 밝힌 본 연구결과는 소수로 구성된 본 연구대상 유아수를 고려할 때 적지 않은 제한점으로 남는다. 이는 보다 많은 3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분명히 밝혀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 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거짓말의 선행 변인을 유아의 연령과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이라는 두 가지 변인으로 제한하였다. 유아의 여러 발달적 측면과 마찬가지로 유아의 거짓말은 수많은 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 근거할 때, 후속 연구에서는 유아의 거짓말을 초래하는 보다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첫째, 대부분의 도덕성 연구들이 인지발달론을 중심으로 연구가 용이한 고학년의 학령기 아동 혹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되어온 상황에서 본 연구는 초기 사회화 시점으로 볼 수 있는 유아기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로써 보다 어린 연령층에 속하는 아동들이 행하는 거짓말을 이해하는 데 그 학문적 의의가 있다. 둘째, 거짓말 개념 및 판단에 제한되어 있던 국내연구에서 벗어나 실험 연구를 통해 실제 갈등상황에서 유아의 거짓말을 측정하여 거짓말 발달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어머니 양육행동의 일환인 언어통제유형이 유아의 거짓말에 미치는 커다란 영향력을 발견함으로써, 어머니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유아의 도덕성 증진을 돕는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였다.

□ 접수일 : 2008년 05월 15일

□ 심사일 : 2008년 05월 26일

□ 심사완료일 : 2008년 06월 10일

【참 고 문 헌】

- 강석중(2002). 부모 간 양육태도 일치여부가 자녀의 도덕적 판단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경희(2002). 한국 아동과 청소년의 도덕적 정서: 죄책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1), 35-55.
- 김상윤(1993). 유아의 도덕개념과 도덕행위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논총**, 3, 57-73.
- 김시은·정영숙(2000). 도덕판단에서 취학전 아동의 의도사용과 의도성 구분의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1), 49-64.
- 김현정·조숙자(2003). 3세 아동의 전략적 속임행동에 관한 연구: 창과제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3), 21-36.
- 노인석(1987). 한국 중학생의 도덕성 발달에 관련된 주요 변인 연구. 세종대학교대학원 교육학과 석사 학위 청구 논문.
- 박찬옥·권향숙(1990). 아동의 거짓말 판단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문제연구소 논문집**, 6, 33-41.
- 배현진(2000).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과의 관계. 전북대학교석사학위 청구논문.
- 손은경(2002). 진실과 거짓말에 대한 아동과 어머니의 도덕적 판단능력에 관한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석사 학위 청구논문.
- 양돈규·성옥련(1994). 긍정적 피드백이 아동의 정직행동 및 그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7(1), 110-123.
- 여인숙(1985). 아동의 가정환경과 도덕적 판단능력 및 도덕적 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6(1).
- 이은정·우남희 (2003). 거짓행동에 대한 부모의 태도 분석. **생활과학연구**, 8, 118-130.
- 원효현(1987). 도덕성발달의 관련변인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이경희·정옥분(1994). 부모의 언어통제유형 척도의 개발. **아동학회지** 15(2), 109-123.
- 이경희·정옥분(1994).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2(5), 69-96.
- 이선인(1995).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성별에 따른 부정적 행동. **한국교육문제연구소 논문집**, 113-125.
- 이수미·김혜리(2000). 3, 4세 아동의 속임수에 대한 이해: 상위

- 표상과 마음이론. *인간발달연구*, 7(2), 31-48.
- 이옥경 · 이순형(1996). 과제의 부담과 종류에 따른 아동의 친 사회적 도덕추론과 친사회적 행동. *아동학회지*, 17(1), 275-287.
- 이운진(2000). 학령 전 아동의 마음이론의 개념적 발달: 속임 능력에 관한 실험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현경(1997). 유아의 도덕성 발달과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의 관계: 영역구분 이론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지영(2005). 유아의 기질 및 부모의 언어적 통제 유형과 유아의 자기 통제력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현희 · 최경순(1992). 아버지의 양육 참여행동과 아동의 친 사회적 도덕판단능력. *아동학회지*, 13(1), 38-48.
- 황혜원(2003). 유아의 도덕성 발달과 가족요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아동학회지*, 24(2), 35-49.
- Baumrind, D.(1967). Child care practices anteceding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75, 43-88.
- Blasi, A.(1980). Bridging moral cognition and moral action: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Psychological Bulletin*, 88, 1-45.
- Bussey, K.(1992). Lying and Truthfulness: Children's Definitions, Standards and Evaluative Reactions. *Child Development*, 63(1), 129-137.
- Bussey, K.(1999). Children's Categorization and Evaluation of Different Types of Lies and Truths. *Child Development*, 70(6), 1338-1347.
- Gumperz, J. J.(1973). *Directions in sociolinguistics: The ethno-graphy of communication*. London: Holt, Rinehart & Winston.
- Hoffman, M. L. & Saltzstein H. D.(1967). Parent discipline and the child's moral develop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45-57.
- Lewis, V. M., Stanger C., Sullivan, M.(1989). Deception in 3-Year-Olds. *Developmental Psychology*, 25(3), 439-443.
- Peterson, C. C., Peterson, J. L., & Seeto, D.(1983). Developmental Changes in Ideas about Lying. *Child Development*, 54, 1529-1535.
- Piaget, J.(1932). *The moral judgement of the child*. N.Y.: Macmillan.
- Polak, A, & Harris, P. L.(1999). Deception by young children following noncompliance. *Developmental Psychology*, 35, 561- 568.
- Talwar, V., & Lee, K.(2002). Development of lying to conceal a transgression: Children's control of expressive behavior during verbal decep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6(5), 436-444.
- Talwar, V, Lee, K., Bala, N, & Lindsay, R. C. L.(2002). Children's Moral Understanding of Lie-Telling and Their Actual Behaviour: Testing the Assumptions of the Court Competence Examination. *Law and Human Behavior*, 26, 395-415.
- Thoma, S. J, Rest J. R. & Davison M. L.(1991). Describing and Testing a Moderator of the Moral Judgement and Action Relation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4) 659-669.